

'86일 대장정' 광주비엔날레 폐막... '울림'은 없었다

70만 관람... 14회보다 35% ↑ '판소리 울림' 주제 부합하는 임팩트 있는 작품 없어 아쉬워

제15회 광주비엔날레가 86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광주비엔날레는 1일 오후 6시 비엔날레 거시기 홀에서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비롯해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도순트, 운영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판소리-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전 세계 30개국 72명 작가가 참여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으며 본 전시관 외에도 양림동 8곳이 전시 공간으로 활용됐다.

광주비엔날레에 따르면 지난 9월 6일부터 86일 간 전시장에는 약 70만 명 관람객이 다녀갔다. 이는 지난해 열린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관람객보다 약 35%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관람객 비율도 약 7% 늘어났다. 다만, 시내 전역의 파빌리온을 방문한 관람객까지 포함한 것으로, '공식적인' 유료 관람객 수는 이보다 적었다는 게 문화계 일각의 전언이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 비엔날레는 국제 미술 행사임에도 임팩트 있는 작가의 작품은 많지 않았다. 이슈나 담론 등이 평이해 광주비엔날레 30년 타이틀에 부합하는 전시를 구현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평가다.

이번 주제 '판소리-모두의 울림'은 인간, 기계, 동물, 영혼, 유기 생명체 모두가 공유하는 '관계적 공간'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뒀다. 주 전시관인 용봉동 비엔날레전시관을 중심으로 기후 변화 등 전 지구적인 현상들이 인간의 문제를 탐구하는 취지였다. 전시공간은 '부딪힌 소리', '결집 소리', '처음소리' 등 색채로 구성됐으며 공간(판)이라



판소리-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86일 간의 대장정을 마친 광주비엔날레 주 전시관 전경/김진수 기자 jeans@

는 의제를 소리(사운드)로 공명을 시도해 서사와 전시를 감상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었다.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은 "판소리는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는 주제이지만 한편으로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주제"라며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소리와 진동에 토대를 둔 오페라 양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삶의 터전과 예술의 공존 가능성을 다채롭게 실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감독의 의도와 관객들이 추구하는 주제 사이에 간극이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 미술계 인사는 "부리오 감독은 지구상의 다양한 소리를 작품에 담으려 했다"면서도 "이와 달리 관객들이 상상하는 판소리의 출발점은 감독의 그것과는 결이 다른 듯 했다"고 전했다.

올해는 세계 22개 국가와 9개 기관·도시가 참여, 역대 31개 파빌리온이 운영돼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전시 공간의 확장과 다변화라는 긍정적인 평

가도 있지만 시내 전역에 분산된 탓에 몰입도가 떨어진 면도 있다. 평일 파빌리온이 밀집한 양림동 등은 관람객이 거의 없어 국제 미술제다운 분위기를 느낄 수 없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몇 가지 긍정적인 성과는 있었다. 광주 출신 작가인 한강이 '판소리-모두의 울림'의 소제목(부딪힌 소리, 결집 소리, 처음 소리) 작품에 참여한 사실이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과 맞물려 '화제'가 됐다. 한강은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의 전시 기획 의도를 우리말로 잘 구현했으며, 개막 공연 '판소리 마당' 퍼포먼스는 한강 작가가 직접 낭송한 사운드를 배경으로 펼쳐졌다.

한편 박양우 대표이사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더욱 뜻깊었던 광주비엔날레가 86일 동안 큰 사고 없이 마무리 됐다"며 "이번 전시회를 찾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K-정원 전남 '애양단' 뉴욕서 인기

10월 25일 개장 후 인파... 내년 뉴욕한국문화원서 수목 전시회

뉴욕 한복판에 조성된 전남 정원 '애양단' (사진)의 인기가 폭발하고 있다. 한류 열풍과 함께 뉴욕, 재미동포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사진 명소로 알려져 SNS를 타고 사진, 영상 등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정원은 뉴욕한국문화원 2-3층 야외 테라스 공간에 설치되었으며, 전남 출신으로 세계적 정원디자이너 황지해 작가가 한국 전통정원의 우아함과 전남의 자연 정취를 담아 설계하고 시공했다. 정원 콘셉트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 정원인 담양 소쇄원 내 햇별 좋은 자리에 있는 전통 담장 애양단(愛陽壇)을 주제로 삶의 자세, 여유, 품격, 자연에 순응하는 삶 등 전남의 정신문화를 표현했다.

정원에는 한국산 전통기와로 애양단 흙담장을 쌓고 전남의 절묘한 문화를 상징하는 소금옥, 우물 등 전통 소재를 사용해 소박하고 담백하게 표현했다. 담장은 한국의 문화재 기술자가 직접 쌓아 전통의 맛을 살렸다. 정원의 가장 핵심인 나무는 배롱나무, 은목서, 생열귀, 쉬팡, 무궁화, 만병초 등을 심어 한국 전통정원의 특징을 표현했다.

김진수 뉴욕한국문화원장은 "세계의 중심 뉴욕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정원이 조성되어 문화원의 명소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 공간이 대한민국의 수준 높은 정원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장이 되도록 앞으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태욱 뉴욕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는 "뉴

욕의 명소 하이라인파크 조성에 참여하였는데, 한국정원 애양단은 뉴욕의 또 다른 명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곳에서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끼며, 도시 속에서도 잠시나마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큰 의미가 있으며 애양단 정원이 뉴욕에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안글리 파오사외도 전미 조경가협회 뉴욕 지부장은 "전남정원은 뉴욕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미학과 정서가 잘 표현된 아주 특별한 공간으로 정원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담장의 건축미를 경험할 수 있어 매우 감동적이다"고 찬사를 쏟아냈다.

전남도는 '애양단'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2025년 10월 초 뉴욕한국문화원에서 전남도 수목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정원은 지난 1월 당시 김진수 뉴욕문화원장의 제안을 김영록 지사가 받아들여 조성에 착수했으며, 10월 25일 뉴욕한국문화원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김진수 뉴욕한국문화원장, 김의환 뉴욕총영사, 김광석 뉴욕한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갖고 정식 개장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5대 신활력벨트' 가시적 성과 낸다

'추진상황 보고 및 내년 방향' 논의

광주시가 5대 신활력 벨트 사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서창 감성 조망대'가 내년 상반기 문을 연다.

광주시는 지난 29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대 신활력벨트' 2024년 추진 성과를 공유하는 보고회를 개최했다.

고광원 행정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5대 신활력벨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진단을 통해 내년도 효과적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5대 신활력벨트'는 광주시 주요 거점에 재미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영산강·황룡강 익사이팅벨트, 광주전 생태힐링벨트, 광주송정역 활력벨트, 광주역 창업벨트, 효천역 디지털콘텐츠벨트 조성 등이다.

영산강·황룡강 익사이팅벨트는 지난해 10월 'Y

디지털콘텐츠벨트·GCC사관학교 콘텐츠인재 132명 첫 배출 호남 최대 광주역 창업벨리 '빛고을창업스테이션' 12월 준공 Y-프로젝트 마중물 사업 '서창감성조망대' 내년 상반기 개방

-프로젝트 기본 구상안'을 마련한 이후 6개 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용역 착수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첫 성과물로 내년 상반기 옛 서창포구에 영산강변 자연 생태계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서창 감성 조망대'를 선보인다.

광주전 생태힐링벨트는 지난 2월 두물머리-발산교 캠탈레버 하부에 걷기 좋은 산책로를 조성했으며, 전방·일선방직 부지와 인접한 서방천의 수량 확보 및 수질 개선과 가아첸파인스피드 인근 힐링·여가 친수공간 조성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광주송정역 활력벨트는 지난 9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사업인 광주송정역 '빛의 관문'을

조성하고, 광주송정역을 두 배로 확장하는 증축 공사 시공업체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광주역 창업벨트는 창업지원 핵심시설인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이 이번달 준공돼 내년 3월 개관할 예정이며, 연구개발(R&D) 융복합 창업 지원시설인 '복합허브센터'가 지난 7월 착공에 들어가는 등 호남권 최대 규모의 '광주역 창업벨리' 사업도 순항하고 있다.

효천역 디지털콘텐츠벨트는 문화콘텐츠 인력 양성을 위한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사관학교 1기 운영을 통해 132명의 수료생을 첫 배출했고, 이 중 19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공공기관 2차 이전 물건거기나

▶1면에서 계속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광주·전남 6개 시민단체가 모인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균형발전 광주·전남시도민운동본부'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2차 이전 약속은 국가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한 약속대로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전남도도 전남연구원을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전략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농·수협 중앙회 등 5대 분야 61개 기관을 유치가능 공공기관으로 선정하고 전남 이전을 촉구하는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정부 발표

가 늦춰지면서 유치 전략 마련 및 유치 촉구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연구원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경우 공공기관 분사 뿐 아니라 업무와 연계성이 깊은 출자 및 산하기관 등이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과 농·수협 중앙회 등 지역 여건 및 특성 등과 관계가 깊은 공직유관단체도 이전대상 공공기관으로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만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많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첨가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 1997 테리인더스트리㈜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팀,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납세자 표창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